

중동 에너지 리스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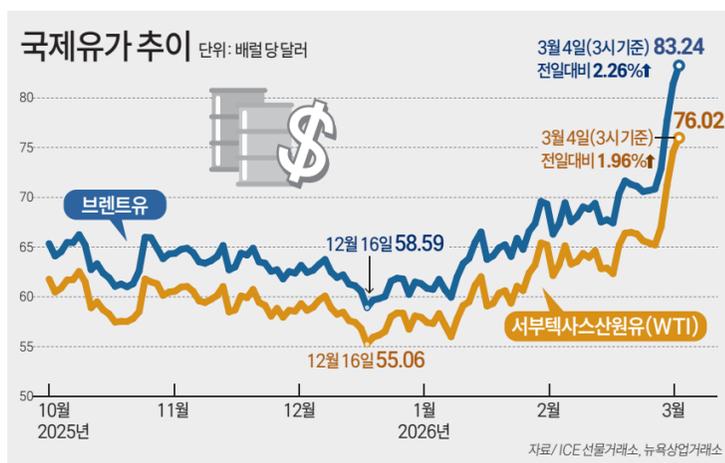
하루만에 휘발유 값 42.6원 올라... 28개월만에 최고 수준

국제유가 상승분 즉각 반영
전국 주유소 차량 대기 행렬
일각선 석유판동 우려 시각도

국제유가 급등에 따라 국내 휘발유 가격도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4일 휘발유 값은 최근 2년4개월 사이 가장 비싼 수준까지 치솟았다.

일반적으로 국내의 경우, 2~3주의 시차를 두고 원유 가격 변동을 따라가지만 이번엔 상승 폭이 즉시 반영되는 모습이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값은 전일 대비 리터(ℓ)당 42.66원(2.48%) 오른 1765.70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 10월23일 기록한 1766.04원 이래 28개월여 만에 최고치다.



통상적으로 일일 가격 변동폭은 전 거래일과 비교해 0~0.3% 범위에서 오르거나 내린다. 그러나 이번 상황하에 선 달랐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이 단행된 지 이틀 만인 이

달 2일 휘발유 가격 상승률은 0.42%로 확대된 뒤 3일 1.69%, 이날 4일에는 2.48%까지 뛰었다.

전국 각 주유소에는 조금이라도싼 값에 연료를 채우려는 차량 행렬이 북

물이고, 이같이 몰려드는 수요에 사업자들이 앞다퉈 소비자 가격 인상에 나서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경유 가격은 더 크게(4.41%) 상승하며 리터당 1700원을 넘어섰다. 오후 3시 기준 1706.66원까지 뛰었다.

국제유가는 80달러 선을 호가하고 있다. 이날 3시(한국시간) 기준 북해산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2.26% 뚝 배럴당 83.24달러에 거래됐다. 중동산두바이유는 배럴당 80.39달러, 미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76.02달러로 각각 전일 대비 5.04%, 1.96% 올랐다.

이에 이른바 석유판동을 우려하는 관측도 해외에서 나오고 있다. 골드만삭스 등 주요 국제투자은행(IB)들은 페르시아만·호르무즈해협의 불안정한

상황이 고조됨을 들어, 유가가 100달러까지 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지상전으로의 확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란의 해군·공군력 무력화만으로 종전에 이르는 것은 어렵다고 예측한다.

또 이란의 까다로운 지형을 들어, 미국·이스라엘이 지상군을 투입할 시 견딜 수 없는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고 언급한다. 게다가 육군의 경우, 이란 군사력이 이스라엘보다 우위에 있다는 분석이 중론이다.

반면 이란 공습 이전부터 원유 공급은 충분했음뿐더러, 미국 내 원유 생산이 늘면서 세계 경제의 중동산 의존도가 줄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한국석유공사, 전략비축유 방출 등 비상조치 검토

중동정세 변화 선제적 대응
해외 생산분 도입 등 논의

한국석유공사가 중동 정세 급변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전략비축유 방출 등 비상조치 점검에 나섰다.

석유공사는 지난 3일 최문규 사장 직무대행 주제로 '석유수급 위기대응 상황반' 회의를 긴급 개최하고, 중동발 고유가 리스크 확대에 따른 대응체계를 점검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 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열렸다. 석유공사는 정부의 석유수급 위기대응체계에 맞춰 자체 상황반을 가동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략비축유 방출 ▲공동비축 우선구매권 행사 ▲해외 생산분 도입 등 단계별 석유수급 안정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전략비축유는 정부가 자연재해, 전쟁 등으로 석유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민간에 방출하기 위해 저장하는 재고로, 석유공사가 전국 9개 비축기지에서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부 비축량과 민간 비축량을 합해 국제에너지기구(IEA) 권고 기준인 90일분을 웃도는 수 개월치 비축유를 확보하고 있다.

석유공사는 과거 ▲1991년 걸프전 ▲2005년 미국 허리케인 카트리나 ▲2011년 리비아 사태 ▲2022년 글로벌 고유가 대응 공조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총 다섯 차례에 걸쳐 IEA 등 국제사회와 공조해 정부 비축

유를 방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중동 사태로 석유제품 가격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에 대비해 유동단계별 일일 유가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오픈넷과 알뜰주유소사업 등을 통한 국내 유가안정 방안도 논의했다.

최문규 사장 직무대행은 "국제정세의 불안정으로 에너지 수급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지금, 에너지 안보를 담당하는 공사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하다"며 "국영석유사로서 정부 지침에 따른 비상조치 방안



4일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주유소가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뉴시스

을 즉각 실행할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경영진부터 일선의 직원들까지 모두 한마음으로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



반도체 등 제조업 주춤... 산업생산 줄고 소비·투자 증가

금액 기준 수출통관 크게 증가

반도체 등 제조업이 주춤하면서 산업 생산이 석 달 만에 감소로 돌아섰다. 반면 소비와 설비투자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국가데이터처가 4일 발표한 '2026년 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 산업생산은 전월에 비해 1.3% 줄었다. 산업생산은 지난해 10월(-2.2%) 이후 11월(0.7%)과 12월(1.0%)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다가 지난 1월 감소했다.

제조업(-2.1%)을 포함한 광공업 생산이 전월 대비 1.9% 감소했다. 반도체(-4.4%)와 기타운송장비(-17.8%)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산업활동동향은 물량 기준으로 생산을 집계하는데, 최근 D램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177.0% 상승하는 등 반도체 가격이 크게 올랐다"며 "금액 기준 수출통관은 크게 증가했지만 물량지수에서는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조업 출하는 전월 대비 1.6% 감소했다. 수출 출하(-1.7%)와 내수 출하(-1.3%)가 모두 줄었다. 제조업 재고·출하 비율(재고율)은 97.8%로 전월 대비 1.



7%포인트(p) 상승했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1.2%로 전월 대비 1.4%p 하락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정보통신(8.0%), 금융·보험(1.1%) 등은 생산이 증가했지만 도소매(-1.4%), 전문·과학·기술(-3.0%), 운수·창고(-2.8%) 등에서는 감소했다.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2.3% 증가했다. 의복 등 준내구재(6.0%), 통신키타

컴퓨터 등 내구재(2.3%)와 화장품 등 비내구재(0.9%) 판매가 모두 늘었다.

업태별로 백화점(6.3%), 대형마트(0.9%), 면세점(10.0%), 승용차·연료소매점(0.2%) 등에서 판매가 늘었고, 슈퍼마켓·잡화점(-1.8%), 편의점(-0.1%), 전문소매점(-1.2%), 무점포소매(-0.6%) 등에서는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6.8% 증가하며 4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했다. 자동차 등 운송장비(15.1%)와 반도체제조용기계 등 기계류(4.0%)에서 투자가 모두 늘었다.

건설기성(건설업체의 시공 실적을 금액으로 집계한 통계)은 11.3% 감소했다. 지난 2012년 1월(-13.6%)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나타냈다. 토목(0.0%)은 전월 대비 보험세를 나타냈지만 건축(-15.0%)에서 공사실적이 크게 줄었다.

동행지표는 보험, 선행지표는 상승 흐름을 나타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 대비 보험을 기록했다. 다만 향후 경기 흐름을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0.7p 올랐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



국내 기관, 1년 새 해외증권투자 20% ↑

美 금리인하 등 영향... 5000억弗 돌파

지난해 말 국내 주요 기관투자자의 외화증권투자 잔액이 5000억달러를 돌파해 1년 새 20% 넘게 증가했다. 미국 경제의 견조한 성장과 AI 기대 속에 글로벌 주가가 상승하고, 미 연준의 금리 인하로 미국채금리가 하락하면서 주식·채권 평가이익과 순투자 증가가 겹친 영향이다.

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중 주요 기관투자자의 외화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2025년 말 우리나라 주요 기관투자자(자산운용사·외국환은행·보험사·증권사)의 외화증권투자잔액(시가기준)은 5078억3000만달러로 전년 말 대비 872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증가율은 20.7%다.

한은은 미국 경제의 견조한 성장세와 AI 산업 발전 기대 지속으로 주요국 주가가 상승하고,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지속으로 미 국채금리가 하락하면서 외국 주식과 채권 모두 평가이익이 발생한 데다 순투자도 늘어난 결과라고 설명했다.

투자주체별로는 자산운용사 잔액이

3582억4000만달러로 681억달러 증가해 전체 증가를 주도했다. 보험사는 750억달러로 94억3000만달러 늘었고, 외국환은행은 520억2000만달러(+59억1000만달러), 증권사는 225억7000만달러(+38억달러)를 기록했다.

상품별로는 외국주식 잔액이 2925억3000만달러로 660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한은은 주요국 주가 상승에 따른 평가이익에 더해 자산운용사를 중심으로 순투자가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외국채권 잔액은 1828억9000만달러로 189억8000만달러 늘었는데, 미 연준의 금리 인하 등에 따른 미 국채금리 하락(10년물 4.57%→4.17%)으로 평가이익이 발생하고 보험사를 중심으로 순투자가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거주자가 해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 증권인 코리아 페이퍼(Korean Paper) 잔액도 324억1000만달러로 22억2000만달러 증가했다. 한은은 외국환은행을 중심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

